

국립국어원 국회 회의록 요약 말뭉치 2022

(버전 1.0)

- **자료명:** 국립국어원 국회 회의록 요약 말뭉치 2022
- **공개일**
 - (버전 1.0) 2023. 12. 29.
- **자료 유형:** 텍스트
- **관련 사업:** 2022년 회의록 요약 분석(2022)
- **자료 설명**
 - ※ 자세한 내용은 국립국어원 누리집 > 자료 > 연구·조사 자료 > ‘2022년 회의록 요약 분석’ 사업 보고서 참고
- **내용**
 - 국립국어원 국회 회의록 말뭉치 2021에서 추출한 회의록 500건에 대해 쟁점별로 중요 표현, 쟁점 요약문, 쟁점의 세부 요약문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작성한 대표 요약문으로 구성된 말뭉치
- **분량:** 국회 소위원회 회의록 500건(원시 말뭉치 기준 약 400만 어절)
- **파일 형식:** JSON(UTF-8 인코딩)
- **파일 수 및 크기:** 파일 500개, 총 71MB(ZIP 파일 기준)
- **인용:**
 - (국문) 국립국어원(2023). 국립국어원 국회 회의록 요약 말뭉치 2022(버전 1.0). URL: <https://kli.korean.go.kr/corpus>
 - (영문)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2023). NIKL Corpus of Korean Parliamentary Minutes Summarization 2022 (v.1.0). URL: <https://kli.korean.go.kr/corpus>

· 파일 명명 규칙

자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속성	유형	구성 방법	주석 단계	구축 연도	일련번호(8자리)									
정의 값	S: 구어	B: 공적 대화 (국회 소위원회 회의)	SC: 요약	22: 2022년	00000001 ~ 99999999 (여덟 자리 일련번호)									
※ 예시: SBSC2200002150.json 2022년에 구축한 국회 회의록 요약 말뭉치 파일														

· 예시

```
{
  "id": "SBSC2200004232",
  "metadata": {
    "title": "국립국어원 국회 회의록 원시 말뭉치 추출 SBSC2200004232",
    "creator": "국립국어원",
    "distributor": "국립국어원",
    "year": "2022",
    "category": "회의록 > 국회소위원회 > 예산·결산소위원회",
    "annotation_level": [
      "요약 분석"
    ],
    "sampling": "본문 전체"
  },
  "document": [
    {
      "id": "SBRW2100004232.1",
      "metadata": {
        "title": "제344회국회(임시회·폐회중)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예산·결산소위원회) 제2호",
        "author": "국회사무처",
        "publisher": "국회사무처",
        "date": "20160808",
        "topic":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2. 2016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
      "SC": {
        "main_summary": "본 회의는 제344회 2차 예산결산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해 유동수 위원은 울산시 컨벤션 설립에 대해 오히려 국비로 160억을 확보해서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조선업을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는 것이 더 맞지 않냐는 차원에서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역보험기금 출연은 400억 감액하고, 조선산업 퇴직인력 교육사업은 40억 증액함에 따라 일반회계는 360억 감액되며,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추경 증액안의 20% 감액되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감액하지 않으며
```

무험보험기금운용계획안은 400억을 삭감하기로 하였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해서 증액 및 감액 부분은 심의하여 조정한 대로 수정의 결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다.",

```

"issue_summary": [
  {
    "issue": {
      "topic":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산업통상
자원부 소관 2. 2016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keyword":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sentence_id": "SBRW2100004232.1.1.6",
      "begin": 13,
      "end": 42
    },
    "summary": {
      "abstract": {
        "form": "유동수 위원은 울산시 컨벤션 설립에 대해 오히려 국
비로 160억을 확보해서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조선업을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는 것
이 더 맞지 않냐는 차원에서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역보험기금 출연은 400억 감액하고, 조
선산업 퇴직인력 교육사업은 40억 증액함에 따라 일반회계는 360억 감액되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는 추경 증액안의 20% 감액되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감액하지 않으며 무험보험기금운용
계획안은 400억을 삭감하기로 하였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산
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해서 증액 및 감액 부분은 심의하여 조정한 대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
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다.",
        "reference": [
          "SBRW2100004232.1.1.245",
          "SBRW2100004232.1.1.255",
          "SBRW2100004232.1.1.256",
          "SBRW2100004232.1.1.257",
          "SBRW2100004232.1.1.258",
          "SBRW2100004232.1.1.259",
          "SBRW2100004232.1.1.261",
          "SBRW2100004232.1.1.264",
          "SBRW2100004232.1.1.265"
        ]
      },
      "sub": [
        {
          "type": "Problems/Issues",
          "form": "수석전문위원 김병선은 추경예산안에 대해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8억 5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다루는 것
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되었으며, 조선해양산업 핵심기술 개발사업 부분이 본예산에 반영
하는게 더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류되었다고 설명했다.",
          "reference": [
            "SBRW2100004232.1.1.16",
            "SBRW2100004232.1.1.18"
          ]
        }
      ]
    }
  },
  {
    "type": "Problems/Issues",

```

```

"form": "산자부에서는 추경안보다 본예산으로 다룰 필요
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중소기업 인력지원의 경우 산업계나 출연연에서 퇴직한 연구인력이 계속
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선정 된 기업은 적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된 대로 인정해 줄 것을 부탁하였
고, 조선해양 핵심기술 개발사업의 경우 여러 논의가 있었으나 보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는 본예산
보다는 추경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reference": [
  "SBRW2100004232.1.1.22",
  "SBRW2100004232.1.1.23"
]
},
{
  "type": "Problems/Issues",
  "form": "이찬열 위원은 산자부의 입장에 대해 시급한 예
산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수석전문위원 등과 논의하여 삭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라고 제안했
다.",
  "reference": [
    "SBRW2100004232.1.1.26",
    "SBRW2100004232.1.1.28"
  ]
},
{
  "type": "Problems/Issues",
  "form": "김경수 위원은 추경예산에 R&D 예산을 넣는 것
을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본예산으로 계상하고 추경에서는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
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은 본예산으로 계상할 경우 지원사업이 늦어진다면 사업의
취지를 감안해서 인정해달라고 당부했다.",
  "reference": [
    "SBRW2100004232.1.1.29",
    "SBRW2100004232.1.1.30"
  ]
},
{
  "type": "Problems/Issues",
  "form": "김수민 위원은 산자부의 의견에 대해 추경예산에
서는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reference": [
    "SBRW2100004232.1.1.37"
  ]
},
{
  "type": "Problems/Issues",
  "form": "윤한홍 위원은 추경예산에 대해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면 특정한 기업을 지정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물었고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은 불특정 다수 중소기업을 공모해서 지정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대해 윤한홍
위원은 특정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 의견을 존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reference": [
    "SBRW2100004232.1.1.42",
    "SBRW2100004232.1.1.43",
    "SBRW2100004232.1.1.45",
    "SBRW2100004232.1.1.46",
  ]
}

```

```

        "SBRW2100004232.1.1.47",
        "SBRW2100004232.1.1.48",
        "SBRW2100004232.1.1.49"
    ]
},
{
    "type": "Problems/Issues",
    "form": "박정 위원은 추경예산에 대한 산자부의 입장에
    대해 기술개발 중에 안 급한 것이 어디 있냐며 본예산과 4개월 차이인데 그 전에는 아무것도 하
    지 않다가 갑자기 추경에서 시급하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과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R&D사업은 제외하는 선례를 남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ference": [
        "SBRW2100004232.1.1.50",
        "SBRW2100004232.1.1.51",
        "SBRW2100004232.1.1.52"
    ]
},
{
    "type": "Problems/Issues",
    "form":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은 박정 위원의 의
    견에 대해 일부 동의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추경에 있는 사업들이 전부 시급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냐며 인력지원사업이나 R&D사업은 본예산으로 편성하자는 원칙을 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특히 기술도 있으니 실제로 적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reference": [
        "SBRW2100004232.1.1.53",
        "SBRW2100004232.1.1.54",
        "SBRW2100004232.1.1.55"
    ]
},
{
    "type": "Problems/Issues",
    "form": "박정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의 의
    견에 대해 기본적으로 기술개발이 되어있는 것을 근거로 실전에 적용해보는 단계로 넘어가야지
    이론도 완성이 되어있지 않는데 실전에 적용하는 공모를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으며 문제가 있
    다고 지적했다.",
    "reference": [
        "SBRW2100004232.1.1.56",
        "SBRW2100004232.1.1.58",
        "SBRW2100004232.1.1.59",
        "SBRW2100004232.1.1.60",
        "SBRW2100004232.1.1.61"
    ]
},
{
    "type": "Problems/Issues",
    "form":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이관섭은 박정 위원의 지
    적에 대해 일부 동의하면서도 조선 업계에서 기대를 걸고 있는 사업에 대해 인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reference": [

```

```

        "SBRW2100004232.1.1.62",
        "SBRW2100004232.1.1.63",
        "SBRW2100004232.1.1.64"
    ]
},
{
    "type": "Problems/Issues",
    "form": "수석전문위원 김병선은 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기관운영·관리비가 6억, 통계기반구축사업이 2억 5000 등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보류되었다고 설명했다.",
    "reference": [
        "SBRW2100004232.1.1.71"
    ]
},
{
    "type": "Problems/Issues",
    "form": "산자부는 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사업 추경예산에 대해 통계적 뒷받침이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단서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업 수행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예외 조항이 있다며 기재부와 실무 협의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추경예산 편성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reference": [
        "SBRW2100004232.1.1.74",
        "SBRW2100004232.1.1.75"
    ]
},
{
    "type": "Problems/Issues",
    "form": "수석전문위원 김병선은 무역보험기금출연에 대해 추경에서 올해 예산이 4300억이 됐는데 여러 가지 사고율 등을 고려했을 때 공급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중장기성 보험을 받지 못하는 등의 수요가 많고 일정 부분 증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같이 대립하고 있어 보류되었다고 설명했다.",
    "reference": [
        "SBRW2100004232.1.1.85"
    ]
},
{
    "type": "Problems/Issues",
    "form": "산자부는 무역보험기금출연에 대해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대비하려면 신흥시장 쪽으로 진출해야 하기 때문에 무역보험기금 자체를 확충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reference": [
        "SBRW2100004232.1.1.87"
    ]
},
{
    "type": "Problems/Issues",
    "form": "윤한홍 위원은 무험보험기금에 대해 한국 수출 촉진을 위한 것이고 특정기업이 아닌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무역보험 받기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안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

        "reference": [
            "SBRW2100004232.1.1.91",
            "SBRW2100004232.1.1.93",
            "SBRW2100004232.1.1.94"
        ]
    },
    {
        "type": "Problems/Issues",
        "form": "유동수 위원은 무역보험기금과 관련하여 큰 틀에
서는 이해가 가지만 수출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이나 출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없다며 어
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ference": [
            "SBRW2100004232.1.1.98",
            "SBRW2100004232.1.1.99",
            "SBRW2100004232.1.1.100"
        ]
    },
    {
        "type": "Problems/Issues",
        "form": "김경수 위원은 무역보험기금과 관련하여 사고율
5%의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사고율을 3%정도로 재조정하고 기금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5~7등급 신용등급 국가별로 어느정도 분배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reference": [
            "SBRW2100004232.1.1.103",
            "SBRW2100004232.1.1.104",
            "SBRW2100004232.1.1.105",
            "SBRW2100004232.1.1.106"
        ]
    },
    {
        "type": "Problems/Issues",
        "form":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 박진규는 무역보험기
금에 대 정책금융기관 재정립 방안이라는 장기 플랜을 두고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사고율의 경우 낮게 관리해 왔는데 앞으로 신흥시장에 진출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사고율은 높아
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reference": [
            "SBRW2100004232.1.1.110",
            "SBRW2100004232.1.1.111"
        ]
    },
    {
        "type": "Problems/Issues",
        "form":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 박진규는 무역보험기
금에 대해 국제금융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신흥국에 대한 보험률의 경우 7%를 적용하고 있다며
국제기준보다 낮은 형태인 5%를 유지하는게 좋겠다고 설명했다. 국가의 등급별 분배에 대해서는
나라별 분배가 아니라 수요에 따라서 협의하여 지원한다는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
        "reference": [
            "SBRW2100004232.1.1.112",
            "SBRW2100004232.1.1.113"
        ]
    }
]

```

```

    },
    {
      "type": "Problems/Issues",
      "form": "유동수 위원은 모역보험의 내년 예산에 대해 물
      었고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 박진규는 본예산에 300억 신청했다고 설명했으며 유동수 위원은
      추경에 4000억 잡고 내년 예산에서 300억을 더 잡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reference": [
        "SBRW2100004232.1.1.121",
        "SBRW2100004232.1.1.122",
        "SBRW2100004232.1.1.123",
        "SBRW2100004232.1.1.124"
      ]
    }
  },
  {
    "type": "Problems/Issues",
    "form": "김경수 위원은 무보기금에 대해 관련 근거를 가
    지고 설명해야 하는데 그런게 부족하다며 사고율을 올리더라도 3, 4%로 조정해서 예산을 조정하
    는게 맞다고 설명했다.",
    "reference": [
      "SBRW2100004232.1.1.129",
      "SBRW2100004232.1.1.130",
      "SBRW2100004232.1.1.131"
    ]
  },
  {
    "type": "Problems/Issues",
    "form": "유기준 위원은 무보기금에 기금을 추가로 출자하
    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고려는 되어야 하는 사항이지만 신뢰성 확보가 특히 중요하다며
    4000억도 신용 건전성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작은 금액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reference": [
      "SBRW2100004232.1.1.133",
      "SBRW2100004232.1.1.134",
      "SBRW2100004232.1.1.135"
    ]
  },
  {
    "type": "Problems/Issues",
    "form": "박정 위원은 유기준 위원의 의견에 대해 기본적
    으로는 동의하지만 과거의 지원 현황을 봤을 때 대기업이 80% 이상을 차지한다며 이런 편중성을
    고려하면 대기업에 대한 지원부분은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ference": [
      "SBRW2100004232.1.1.136",
      "SBRW2100004232.1.1.137"
    ]
  },
  {
    "type": "Problems/Issues",
    "form": "수석전문위원 김병선은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
    급확산사업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는 지적과, 지원은 하되 대상 기업의
    객관적인 선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

```

        "reference": [
            "SBRW2100004232.1.1.140"
        ]
    },
    {
        "type": "Problems/Issues",
        "form": "산자부는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체질을 보강해서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생각한
        다며 이번에 진행하는 사업의 경우 기업에 맞는 수준의 컨설팅트를 붙여 추진하는 것이라 기업의
        반응이 높기 때문에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reference": [
            "SBRW2100004232.1.1.143",
            "SBRW2100004232.1.1.144"
        ]
    },
    {
        "type": "Problems/Issues",
        "form": "수석전문위원 김병선은 뿌리기술·3D프린팅 융합
        인력 양성사업과 해외시장 창출형 요트디자인 컨설팅 지원사업의 경우 추경에 반영되어있지는 않
        다며 3D프린팅 전문학과 개설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
        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고 중복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reference": [
            "SBRW2100004232.1.1.148"
        ]
    },
    {
        "type": "Problems/Issues",
        "form": "수석전문위원 김병선은 조선해양산업 활성화기반
        조성사업에 대해 컨벤션센터의 적자상태, 수요 가능성 등에 대해 지적이 있었고 사업지원비를 추
        진할 준비를 사업 수요를 반영해야 하는데 수요가 있지 않느냐는 등 의견이 대립되어 보류되었다
        고 보고했다.",
        "reference": [
            "SBRW2100004232.1.1.154"
        ]
    },
    {
        "type": "Problems/Issues",
        "form": "산자부는 조선해양산업 활성화기반 조성사업에
        대해 컨벤션센터로 운영하기보다는 여기에다가 조선 관련 지원기관들을 입주시키고, 조선기자재
        산업 또는 조선업의 해외마케팅의 기지로 활용했으면 하는 게 울산시의 생각이고, 그런 관점에서
        빨리 준공해야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reference": [
            "SBRW2100004232.1.1.157"
        ]
    },
    {
        "type": "Problems/Issues",
        "form": "울산광역시기획조정실장 박성호는 조선해양산업
        활성화기반 조성사업에 대해 우수한 국내 조선업체의 기술력을 밀집시켜 해외 인정이나 밴드 등
        록에 도움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며 전국적으로 조선 관련한 인프라 시설이 없고 특히
    
```

컨벤션 시설이 유일하게 울산에 없으며 빨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부탁했다.",

```

        "reference": [
            "SBRW2100004232.1.1.162",
            "SBRW2100004232.1.1.163",
            "SBRW2100004232.1.1.164",
            "SBRW2100004232.1.1.165"
        ]
    },
    {
        "type": "Problems/Issues",
        "form": "울산광역시기획조정실장 박성호는 조선해양산업
활성화기반 조성사업에 대해 부산 벡스코의 5분의 1 수준으로 지어진다고 다른 곳과 중복되게 하
지 않기 위해서 조선 쪽으로 특성화된 기능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복합환승센터나 유통센터
등과 입지를 같이 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도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reference": [
            "SBRW2100004232.1.1.167",
            "SBRW2100004232.1.1.168"
        ]
    },
    {
        "type": "Problems/Issues",
        "form": "김경수 위원은 컨벤션 완공과 예산 비중에 대해
물었고 울산광역시기획조정실장 박성호는 2017년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국비 280억을 희망
하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올해 160억을 계상하고 내년에 120억을 계상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reference": [
            "SBRW2100004232.1.1.185",
            "SBRW2100004232.1.1.186",
            "SBRW2100004232.1.1.187",
            "SBRW2100004232.1.1.188",
            "SBRW2100004232.1.1.189",
            "SBRW2100004232.1.1.190",
            "SBRW2100004232.1.1.191",
            "SBRW2100004232.1.1.192"
        ]
    },
    {
        "type": "Problems/Issues",
        "form": "소위원장 이채익은 울산시 컨벤션 설립과 관련하
여 이는 국가적 사업이고 특히 이번 추경은 조선해양 관련 추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조선
해양 관련한 인프라가 거의 없으며 일자리 창출 등의 복합적인 기능이 있다는 점, 역세권에 위치
하고 있다는 점, 적자 부분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reference": [
            "SBRW2100004232.1.1.195",
            "SBRW2100004232.1.1.196",
            "SBRW2100004232.1.1.197",
            "SBRW2100004232.1.1.198",
            "SBRW2100004232.1.1.199",
            "SBRW2100004232.1.1.203"
        ]
    }
]

```

```

    },
    {
      "type": "Problems/Issues",
      "form": "김경수 위원은 울산시 컨벤션 설립과 관련하여
울산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이면 국민정서로도 납득이 가지만 이 사업은 건물을 짓는 거 아
니냐며 건물 짓는데 국비를 넣는다는 것이 추경과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reference": [
        "SBRW2100004232.1.1.216",
        "SBRW2100004232.1.1.217",
        "SBRW2100004232.1.1.219"
      ]
    },
    {
      "type": "Problems/Issues",
      "form": "김종훈 위원은 이번 추경의 경우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더 시급한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만 조선산업의 실업 사태에 대한 대책이 이번 추경 어
디에도 나와있지 않다며 단순한 전시 컨벤션이 아닌 특성화를 통해 산업지원의 센터기능과 인력
양성 등의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잘 다룰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ference": [
        "SBRW2100004232.1.1.237",
        "SBRW2100004232.1.1.238",
        "SBRW2100004232.1.1.239",
        "SBRW2100004232.1.1.240",
        "SBRW2100004232.1.1.241",
        "SBRW2100004232.1.1.242"
      ]
    },
    {
      "type": "Problems/Issues",
      "form": "유동수 위원은 울산시 컨벤션 설립에 대해 오히
려 국비로 160억을 확보해서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조선업을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
는 것이 더 맞지 않냐는 차원에서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ference": [
        "SBRW2100004232.1.1.245",
        "SBRW2100004232.1.1.246",
        "SBRW2100004232.1.1.247"
      ]
    },
    {
      "type": "Decisions",
      "form": "무역보험기금 출연은 400억 감액하고, 조선산업
퇴직인력 교육사업은 40억 증액함에 따라 일반회계는 360억 감액되며,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추경
증액안의 20% 감액되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감액하지 않으며 무험보험기금운용계획안은
400억을 삭감하기로 하였다",
      "reference": [
        "SBRW2100004232.1.1.255",
        "SBRW2100004232.1.1.256",
        "SBRW2100004232.1.1.257",
        "SBRW2100004232.1.1.258",
        "SBRW2100004232.1.1.259",
      ]
    }
  
```

